자승스님 '어쩌라구' 화두와 윤재웅의 詩

홍진호 기자 | 입력 2021.10.27 14:40 | 수정 2021.10.28 01:56 | 댓글 0

가 가

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.

앵커

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이 2년 전 천막결사때 칠판에 남긴 글귀 '어쩌라구'가 60편의 시로 승화돼 세상에 나왔습니다.

국문학자 동국대 윤재웅 교수의 신간 시집 '어쩌라구'인데요, 불교 화두 참선의 대중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홍진호 기자입니다.

기자

최신뉴스

사회 | 45만여명 응시 '수능'성료..주말부터 대학...

BBS PLAZA | 김인식 사장, "농어촌 현장의견 적극...

정치 | 청와대, "일본 한미일 회견 불참 매우 이례...

지방사 인터뷰 | [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] 지리...

전국 | [코로나19] 제주, 초등학교 잇따라 '집단감...

포토뉴스

인기뉴스

1 '제 18회 추억의 충장축제' 18일 개막...비대면

2 경기교육청, 수능일 버스 파업 예고에 촉각..."도

3 [전국네트워크] 광주·전남 학생 확진 속출...수능

4 2022 수능, 51만여 수험생..수학 치른뒤 점심시

5 부산 수능 고사장, 반입 금지 물품 소지 부정행

6 제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문선희 작가

2년 전 위례 천막법당 '상월선원'에서 회주 자승스님 등 아홉 스님들은 한 겨울 하루 1끼 공양 속에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했습니다.

목숨을 건 이 무문관 결사의 스님들이 정작 더 힘들었던 것은 추위와 배고픔 보다 엄격한 묵언 청규였다는 후문.

화이트보드에 글로 의사소통을 하던 어느날 자승스님이 남긴 게송은 이후 불교중흥을 위한 '수미산원정대' 발족으로 이어졌습니다.

[박기련/ 동국대 출판문화원 대표]

"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을 추니,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라는 게송으로 사부대중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. 스님의 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수미산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, 지금 바로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사바세계임을 깨치게 해 주셨습니다."

천막결사 당시 자승스님이 남긴 알려지지 않은 또하나의 글귀는 '어쩌라구'.

"바나나는 탄수화물이라 소식하는 데 포만감을 주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. 바나나는 남지지 말고 드세요"란 문장 마지막 화룡점정의 단어 '어쩌라구'가 60편의 시가 돼 세상에 나왔습니다.

제1회 만해백일장에서 '대상'을 받고 시인이 되기 위해 동국대 국문학과에 입학했던 문학평론가이자 국문학자인 동국대 윤재웅 교수는 자승스님이 남긴 이 '어쩌라구'를 일상의 화두로 엮어냈습니다.

[윤재웅/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]

"우리가 지금 화두를 든 지 한 천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제 화두도 새롭게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나하는 시민적인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흥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일상에서 친숙하게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고르라면 어쩌라구 될 수 있지 않겠나..."

8 HUG "빌라 세입자도 모바일로 전세보증 가입

BBS 칼럼

전경윤의 '세상살이'

전영신의 '시선'

신두식의 '공감노트'

배재수의 '크로키'

이현구의 '스윙 스팟'

선임기자 칼럼

월 1만원 이상,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
만공회
가입문의 1855-3000
ARS후원 060-800-8000
(한 통화 5천원)

마음 속으로 시인을 꿈꿨던 문인 윤 교수는 '어쩌라구'를 만나서야 비로소 시심이 샘솟습니다.

윤 교수는 어쩌라구는 질문이면서 답이며, 때론 대안이 된다며 갑론을박의 현대사회에서 상충된 이해관계를 찾는 일상 속 화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

[윤재웅/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]

"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저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갑론을박이 날아다니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도 많고 서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. 그랬을 때 현실적인 좋은 대안을 찾아나는 문화적인 훈련이 우리사회에 필요한데..."

[스탠딩] '어쩌라구'를 통해 터져 나온 시들이 '화두'의 새로운 확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

서울 충무로에서 BBS NEWS 홍진호 입니다.

(영상취재=강인호/ 영상편집=장준호)

홍진호 기자 jino413@naver.com

다른기사 보기

저작권자 ©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추천 0

반대 0

당신만 안 본 뉴스

"애플 포항유치 이끈 민간네트워크...유치효과 ...
송가인, 도경완이 함께하는 은해사 '중악 팔공...
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
전국 사찰에 '정청래 규탄' 현수막 걸린다
동국대,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...역대 첫 '톱10' ...
'제 18회 추억의 충장축제' 18일 개막...비대면 ...
[단독]"한국 요소난 이렇게 심했어?"...中 당국, ...

기사 댓글 0

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권리침해,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.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.

0 / 4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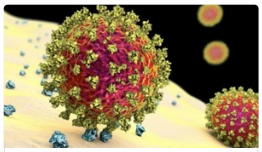
주요기사

45만여명 응시 '수능'성
료..주말부터 대학별 수

김인식 사장, "농어촌
현장의견 적극 반영...실

청와대, "일본 한미일
회견 불참 매우 이례

[광주BBS 빛고을 아침
저널] 지리산 화엄사 빛



[코로나19] 제주, 초등
학교 잇따라 '집단감

서욱 국방장관, 울릉도
찾아 대비태세 점검

BBS불교방송(재)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(다보빌딩) | 대표전화 : 02-705-5114 | 팩스 : 02-705-5229 | 청소년보호책임자 : 배재수
제호 : BBS NEWS | 등록번호 : 서울 아 01259 | 등록일 : 2010-06-03 | 발행일 : 2001-09-01
발행인 : 박형수(종하) | 편집인 : 전경윤

BBS NEWS 모든 콘텐츠(영상,기사, 사진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 전재와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
Copyright © 2021 BBS NEWS. All rights reserved. mail to webmaster@bbsi.co.kr

POWERED BY NE